

열왕기상 16. 타락해 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하나님의 심판 (왕상 16:1-34)

들어가기

본 장은 ‘여로보암’의 아들 ‘나답’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‘바아사’를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정국을 맞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면서, 드디어 열왕기상의 반을 차지하는 ‘아합’ 왕과 그의 아내 ‘이세벨’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본 장은 ‘바아사’를 시작으로 그의 아들 ‘엘라’, 또 ‘엘라’의 뒤를 이은 ‘시므리’, 그의 뒤를 이은 ‘오므리’, 그리고 ‘오므리’의 아들 ‘아합’까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‘여로보암’의 길을 따르며,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저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며,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심으로, 저들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길 바라셨습니다.

1. 북이스라엘의 3대 왕 ‘바아사’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. (1-7 절)

1) 하나님은 선지자 ‘예후’를 ‘바아사’ 왕에게 보내어 그의 죄를 꾸짖으셨습니다. (1-4 절)

- ‘바아사’: ‘여로보암’의 아들 ‘나답’의 군대 장관
 - 하나님께서 선지자 ‘아히야’를 통해 ‘여로보암’에게 하신 예언대로 ‘여로보암’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킨 후, 스스로 왕이 됨. (왕상 14:9-11, 15:29).
 - 그는 24년 동안 ‘디르사’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악을 행한 왕. (왕상 15:33)

- 선지자 ‘예후’: 이름의 뜻은 “여호와와 그 분” 이란 의미.
 - 그는 선지자 ‘하나니’의 아들이었음!
 - 역대하 16 장 7-10 절
 - 남유다의 ‘아사’ 왕이 북이스라엘 ‘바아사’ 왕의 침략을 받았을 때, 성전의 은과 금을 ‘다메섹’의 아람 왕 ‘벧하닷’에게 바치며 도움을 청한 일을 지적하며,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, 다른 민족을 이용해 형제를 친 것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였음!
 - 이 일로 ‘하나니’는 ‘아사’ 왕의 분노를 사서 즉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됨.

-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 ‘예후’를 통해 ‘바아사’를 책망하신 내용은?
 - ①. ‘하나님께서 그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한 것임을 가르침!
 - ②. 그런데 그는 ‘여로보암’의 길로 행했고,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며, 그들의 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음을 지적!
 -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2 가지!
 - ①. ‘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’ -> 히/원 ‘할락’ = ‘걷다, 산다’란 의미! -> (2, 19, 26, 31)
 - ②. ‘노엽게 하다’ -> 히/원 ‘카아스’ = ‘화나게 하다’란 의미! -> (2, 7, 13, 26, 33)

- ③. 그로 인해 ‘바아사’에게 속한 사람들은 죽어 개와 새들의 먹이가 될 것임을 선포함!
 - ‘바아사’에게 ‘속한’ => ‘바아사’의 가족뿐 아니라, 그의 가족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!
 -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‘아히야’를 통해 ‘여로보암’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과 거의 비슷함! (단 ‘여로보암’ 때는 그의 가족들에게만 심판이 임했음!)
 - 곧 ‘여로보암’처럼 범죄하면,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함!!

- 2) ‘바아사’가 죽자 ‘디르사’에 장사되었고, 아들 ‘엘라’가 북이스라엘의 4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.
- ‘엘라’란 이름의 뜻은 ‘상수리 나무 or 참나무 (영/Oak)’라는 의미
 - 아마도 ‘바아사’는 자신의 아들이 상수리 나무처럼 든든하게 자라고 세워지길 바랐던 듯.

2. ‘엘라’는 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자기 신하 ‘시므리’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. (8-14 절)

- 1) 역사의 반복 or 심은 대로 거두는 일?
- ‘여로보암’의 아들 ‘나답’도 통치 2년째, 자신의 신하 ‘바아사’의 반란으로 죽임 당함.
 - 그런데 ‘바아사’의 아들 ‘엘라’도 통치 2년째, ‘자신의 신하 ‘시므리’의 반란으로 죽임 당함.
- 2) 그럼 ‘시므리’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, ‘엘라’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? (9 절)
- 왕궁 맡은 자, 곧 궁내대신 ‘아르사’의 집에서 함께 술에 취해 있었음!
 - 곧 육체적인 향락에 심취해 있었음!
- > 이는 그가 선지자 ‘예후’의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살았음을 증명!
- 3) 이때 ‘시므리’는 술에 취한 ‘엘라’를 쉽게 죽인 후, ‘바아사’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며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5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. (10-11 절)
- ‘시므리’란 이름의 뜻은 ‘나의 노래’라는 뜻!
 - 당시 ‘시므리’는 북이스라엘 군대 절반을 통솔하던 군대 장관이었음!
 - 특별히 ‘시므리’는 ‘바아사’ 집안에 속한 남자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는데, 그 사람들의 친구들까지 다 찾아서 죽였음! -> 아마 보복이 두려웠던 듯…,
- 4) 이와 같은 ‘바아사’ 집안의 멸망은 선지자 ‘예후’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. (12-14 절)
- 성경은 이 일이 ‘바아사’와 ‘엘라’가 범죄했고, 저들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며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기 때문임을 강조하여 기록!!

3. 반역을 통해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5 번째 왕이 된 ‘시므리’는 왕이 된지 7일만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. (15-20 절)

- 1) ‘시므리’가 ‘엘라’ 왕을 죽이고 스스로 ‘디르사’에서 왕이 되었을 때, 블레셋 ‘김브돈’에 주둔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그의 반란 소식을 듣고, 자신들의 지휘관 ‘오므리’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. (15-16 절)
- 참고 ‘오므리’란 이름의 뜻 -> 3 가지 해석
 - ①. 아랍어의 “아마라” 곧 ‘살다’란 말의 축약형으로 ‘하나님이 주신 삶, 혹은 여호와와의 순례자’라는 해석
 - ②. 곡식의 단위 “오멜” (옥수수)과 같은 의미인 “쌓아 올린 더미”라는 해석
 - ③. ‘성전에서’란 의미로 ‘여호와를 숭배하는 자’라는 해석
 - 참고로 베냐민 지파 ‘베게’의 아들로 당시 북이스라엘 군대의 반을 맡았던 군대 장군!

- 2) ‘오므리’는 ‘시므리’의 반란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‘디르사’ 성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. (17-19 절)
- 아마도 블래셋을 대적하던 전방부대였으니 전투력은 ‘시므리’의 부대보다 훨씬 강했을 것!
 - ‘시므리’는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왕궁 요새로 들어가 스스로 불을 질러 자살하였음!
 - 시편 1:3-5 절, ‘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…,’
 - 유대 속담: 주인을 배신하고 죽인 사람 = ‘시므리 같은 놈’

- 3) 성경은 ‘시므리’의 죽음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라 선언하였습니다. (20 절)
-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!
 -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,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음!

4. ‘시므리’의 뒤를 이어 ‘오므리’가 북이스라엘의 6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. (21-28 절)

- 1) ‘시므리’가 자살한 후, 북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 내란이 발생하였습니다. (21-22 절)
- ‘기낫’의 아들 ‘디브니’를 따르는 사람들과 ‘오므리’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!
 - ‘디브니’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았음.
 - 아마도 ‘시므리’를 따랐던 장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?
 - 그러나 ‘오므리’의 군대가 ‘디브니’의 군대를 이기고 그를 죽이자, ‘오므리’가 왕이 됨!
- 2) 북이스라엘의 6 번째 왕이 된 ‘오므리’는 12 년간 백성들을 다스리며, 북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켰습니다. (23-24 절)
- ‘오므리’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는 남유다의 ‘아사’왕 31 년때였음.
 - 참고로 ‘시므리’가 ‘엘라’를 죽인 후 스스로 왕이 된 때는 남유다의 ‘아사’왕 27 년때임.
 - 곧 4 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내전이 있었다는 것!
 - ‘오므리’ 왕은 ‘디르사’에서 6 년, 사마리아에서 6 년을 통치하였음!
 - ‘오므리’ 왕은 은 두 달란트를 ‘세멜’에게 주며, ‘사마리아’ 산을 사서, 그 위에 ‘사마리아’ 성읍을 건축하였음! -> 아마도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6 년 걸렸을 것!
 - 이후부터 ‘사마리아’가 북이스라엘의 정치적, 군사적, 종교적 수도가 됨!
 - ‘사마리아’의 뜻은 ‘지키는 것, 지키는 산 (watch mountain)’ 이란 의미.
- 3) 그런데! ‘오므리’는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. (25-26 절)
- 25 절 - ‘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,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함’
 - ‘여로보암’의 모든 길로 행하며...,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음!

5. ‘오므리’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‘아합’이 북이스라엘의 7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. (29-34 절)

- 1) ‘아합’ 왕은 ‘사마리아’에서 22 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. (29 절)
- ‘아합’이란 이름의 뜻은 히/원 ‘아흐아브’란 말로 ‘아버지의 형제’란 뜻.
 - 아마도 ‘오므리’는 아들이 자신과 같이 강한 사람 혹은 왕이 되길 바란 듯.

2) 그런데 ‘아합’은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**더욱 더 악을** 행하였습니다. (30 절)

- 그의 아버지도 그러했는데, 그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 보다 더 악을 행함!
- 특별히 성경은 그가 ‘여로보암’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였다고 기록!
 - ①. 그는 시돈 사람의 왕 ‘엣바알’의 딸 ‘이세벨’을 아내로 맞아 ‘바알’을 섬김!
 - 참고로 ‘이세벨’은 천성이 악하고, 음행과 술수가 능한 열렬한 우상숭배자! (왕하 9:22)
 - 또한 이스라엘을 타락시켜 멸망으로 이끈 가장 악한 여인으로 정의됨! (계 2:20)
 - ②. ‘사마리아’에 ‘바알’을 위한 신전 건축 + 그 안에 바알의 제단 + ‘아세라’ 우상을 세움.
- 특별히 33 절을 주목!
 ‘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함!’

3) 그 시대에 벨엘 사람 ‘히엘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‘여리고’ 성을 건축하였습니다. (34 절)

- ‘그 시대’는 어떤 시대인가?
 -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‘아합’ 왕이 통치하던 시대!
 - 왕국의 수도에 바알 신전과 제단이 있고, 아세라 우상을 세워 우상숭배를 하던 시대!
 -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모든 백성들도 그를 따라 악을 행했던 시대!
- 이때 벨엘 사람 ‘히엘’은 두 아들과 함께 ‘여리고’ 성을 다시 건축하려 함!
 - 일찍이 하나님은 ‘여호수아’를 통해 ‘여리고’ 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며 ‘여리고’ 성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음.
 - 여호수아 6 장 26 절
 ‘여호수아가 그 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’
- 그러나 ‘히엘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, ‘여리고’ 성을 다시 쌓기 위해 그 터를 닦을 때, 그의 큰 아들 ‘아비람’이 죽었고, 그 성의 문을 세울 때, 막내아들 ‘스굽’이 죽었음!
 - 성경은 이것은 ‘여호수아’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된 것이라 선언함!
 -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경각심을 갖고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자!

6.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?

7. 중보기도 나눔